

## 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장직 맡고 업체간 중재역할 업종다변화 이룬 실질적 경영으로 흑자경영

윤영욱 / (주)선양 사장



▲ 윤영욱 (주)선양 사장

**기업을** 방문하여 패기있는 경영을 펼치고 있는 경영자들을 대할때면 회사의 발전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흐뭇하다.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경영자중 한사람이 (주)선양의 윤영욱 사장이다.

더욱이 그는 최근 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기업경영에서 보여주었던 추진력을 업계를 위해 다시한번 발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업인이 욕심을 배제한 경영을 지향함으로써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회사, 가정 같은 여유있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선양은 장기근속자들이 대부분이라 인력면에서는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실하는 모습을 볼 때면 흐뭇하기만 합니

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히는 윤 사장은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신입사원부터 시작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술관리자가 로르게 분포되는 것인데 포장업계는 대부분 밑에서부터 유동이 많아 이직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우리업계의 현안이지만 순수 연포장업계도 연포장만 취급해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개발, 다양화시켜야 하는데 이에 선양도 필름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 블로운기계를 도입하여 시험테스트 중에 있어 전반적인 체계가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크라운제과 관계회사에서 일하다 1980년 선양을 설립하고 82년 법인으로 변경,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그다지 큰 경영상의 애로점은 없었으나 과거에 너무 시대적 추세보다 앞서 모험

**포장업계의 현안이지만 순수 연포장업계도  
연포장만 취급해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곤욕을 겪었던 경험을 년즈시 털어 놓았다.

젊은 경영인답게 제품개발에 주력하는 윤사장은 “경영자지만 일일이 자사 제품개발에 참여할 정도로 개발쪽에 관심이 더욱 많습니다. 현재도 관리쪽보다는 투자와 사업다각화 등 순수하게 경영자가 해야 하는 일에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크라운의 계열사인 선양은 연포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크라운제품 약 60% 기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회사소개를 덧붙였다.

많은 제반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포장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20여년전 가격이 지금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다품종 소ロット화 추세가 일고 있는 반면 국내 기계캡과가 너무 커 경제적인 면이 뒤떨어져 소형기계의 개발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제까지는 연포장업계가 외형을 키우는데만 급급했는데 실리위주의 내실있는 기업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에 선양의 경우도로스타임을 줄이는 등 생산성을 높여 이미 1년전부터 이러한 추진을 시작하여 점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업계의 이러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 최근 맡게된 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장의 자리에 더욱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윤 사장은 앞으로 업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몇가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제값받기에 주력할 것입니다. 제값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 여건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저들과 연포장업체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설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잔류용제 문제가 지난해 크게 부각되었는데 그 문제는 잉크타입만 바뀐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다만 잔류용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험방법이 업체별, 기관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객관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포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영업을 펼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전체적인 업계의 상황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업계가 공존공생할수 있도록 업체간의 중재역할을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윤 사장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47세로 외국어대학교 서반어과를 졸업한 윤 사장은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는데 모두 유학중이다.

윤사장은 비교적 젊은 경영자로서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영인이므로 관심을 집중해도 좋을 듯 싶다. ☐

이선하 기자